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호
2013년

Email: VoiceOfNM@gmail.com

영사 업무 일정

LA 영사관에서 영사님께서 오셔서 영사 업무를 해 주실 계획입니다. 많은 이용 있길 바랍니다.

날짜: 10/25/2013 오전 10시-오후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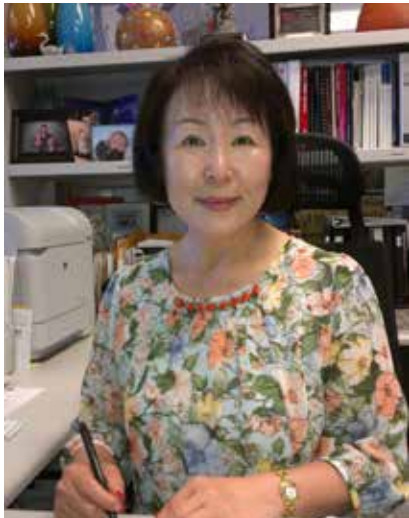
장소: 한인회관-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INTERNATIONAL BALLOON
FIESTA가 개최됩니다.



한인회소식

10월19일 김치축제



2013년10월19일 김치축제를 준비하며 인사 드립니다.

“오늘날 21세기는 ‘도시문명’이어서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삽니다. 1970대 모두들 농촌을 떠나 공단으로, 도시로, 해외로 옮겨갈 때, 우리들은 고향만 떠난 것이 아니라 대가족의 품도 떠났습니다.” 우리의 입맛은 여전히 김치를 찾습니다.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조규자

우리의 후손들도 김치에 길들여져 있지요. 우리가 고국을 떠나 살면서도 김치를 싣것 먹을수 있기에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온 세월 속에 베어 있는 우리의 김치를 통하여 우리 뉴 멕시코 한인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엮어가고 싶으며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구합니다. 정성으로 담가서 여러분 식탁위에서 여러분의 입맛을 돋우는 우리만의 특

고 박인배 목사 추모 예배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를 담임하셨고 일본에서 남침례회(SBC) 선교사로 사역 하시던 박인배 선교사님이 지난 6월 28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추모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일시: 9월 29일, 일요일, 저녁 7시

장소: 침례교회(3315 Tower rd. SW, ABQ)

문의: 윤성열 목사(505-331-9584)

2013년 9/10월호 내용

- 표지 | 영사업무일정/추모예배/ 김치축제 : 1
- 지역사회소식 | 상공인회광고 /실버합창단 공연 : 2
- 한인회소식 | 골프대회보고 /추석잔치 : 3
- 지역사회 | 디지털 그림엽서 캠페인 : 4
- 지역사회 | Paseo/I-25 입체교차로공사 : 5
- 성경해석 | 사람 잡는 성경해석? | 김기천 : 6
- 지역사회 | 고 유재명 선생 부고 : 7
- 수필 | 인생 최고의 시간 바로 지금 | 박수경 : 8
- 지역사회 | 알버커키 공립학교 년중 계획표 : 9
- 수필 | 아픔과 상처의 결정체인 들보 | 박광종 : 10
- 성경공부 | BSF로의 초대 | 권현수 : 11
- 뉴멕시코소개 | 푸에블로 인디언은 ? | 이경화 : 12
- 뉴스 | 지난 달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사건 : 15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안내 : 15
- 광고 | 뉴멕시코 한인 업소 (1) : 16

한인회소식

<김치축제 1페이지에서 계속>

한인상공회소식

한인상공회의소 광고

뉴멕시코 한인상공회의소 2013 하반기 행사를 알려 드립니다. 저희 행사는 뉴멕시코 한인상공인 및 모든 교민 여러분을 위해 주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505-991-8888 이나 kaccnm@hotmail.com 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1회 KACCNM 세미나

2013.10.20 (일) 오후6시, 장소: 한인회관

주제: 보험 -- Obama Care / 건강보험, workers compensation, general liability, 차, 집

제2회 KACCNM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 2013.10.1 ~ 11.10 (일)

발표: 2013.12.1 (일)

수여식: 2013.12.8 (일) 한인상공인의 밤

총장학금액: \$3,000

대학생/대학원생: \$500 x 3명

고등학생 (11-12학년): \$500 x 2명

중학생 (8학년): \$250 x 2

지원자격: 뉴멕시코 거주 한인계 학생, 성적 3.0 이상

제3회 KACCNM 한인상공인의 밤

2013.12.8 (일) 오후6시, 장소: 미정 ■

이한 맛의 김치들로 미국인들에게도 선보이며, 고유의 흥겨운 가락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의 자랑스러워 하는 자존심이 담긴 한인회를 같이 만들어 가야하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팔아 주시는 김치 한병, 한병이 우리의 귀하고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가르치며, 우리의 문화를 가르치며, 한글을 가르치며, 한민족의 우월성을 나누는 교육의 현장이 되는 한글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한 마음의 김치축제로 각 가정에서 말없이 애쓰시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며 어머니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마음에 짐들을 풀어 버릴수 있는 그런 모임을 위해서 쓰일 것 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쓰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뉴멕시코 한인회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참여와 사랑의 손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후원해 주신 탈린 마켓의 Victor Limary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축제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좋은 아이디어로 도움 주실 분들 연락 주세요.

조규자 (575) 621- 1884, 임낸시 (505) 610- 5258 ■

실버합창단 State Fair에서 공연



메기의 추억, 오빠생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합창단

한인회소식

한글학교와 노인회 후원

2013 골프대회 보고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과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을 느끼며 다가오는 한가위를 기대하며 교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9월 2일 에 있었던 전 교민 골프회를 통하여 우리 뉴멕시코 한인회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슴뛰게 하신 교민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물질로 도움을 주신 분들과 그동안 같고 닮은 골프 실력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현장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한인회를 후원하시는 교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뉴멕시코 한인회를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교민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엘파소에서 참석해 주신 한상현님, 찰스 이님, 김선지님, 미스터 라모스, 이동진님

께 감사 드립니다.

참고 : 후원자 명단과 수입 지출 내역도 첨부합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 가미경, 고덕효, 고산석, 조진석, 김길자, 김두남, 김성원, 김영신, 김한옥, 박(사무라이), 박선희, 박용수, 박조지(에스터), 오형태,이동진, 이옥주, 이찰스, 임낸시, 윤태자, 정근태, 정풍자, 조규자, 한광윤, 한상현, 황경성, 황경희,홍정희, Jasmin Thai,William Kelly, Mr. Ramos. Arirang, Yummi House, Kim's Market, Huang Thao, DOT. Clothing, Quarters, A-1 Market, Kelly Liquors.

골프 모임의 지출 내역서 입니다

총수입 \$8230(물품\$570)

지 출 \$3692(물품\$570) 현잔액 \$4538. ■



추석 잔치

한인회에서는 추석을 맞아 9월 18일(수) 한인회관에서 교민 여러분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 하였다. 실버 합창 단원들도 State Fair 공연을 마치고 자리를 함께 하였다.

지난 9월 18일 스테이트 페어에서 있었던 군인의 날 행사에 한인회의 실버 합창단 (지휘:강혜숙 사모, 반주:권지현 사모)공연이 있었다. 이어서 고전 무용가 이희정씨가 임은아씨의 장구와 협연으로 선 보였고 이경화씨의 하모니카독주도 있었다.



9월4일 수요일 뉴멕시코 노인회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지역사회소식

디지털 그림 엽서 캠페인



뉴멕시코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알버커키 컨벤션과 비지터 뷰어에서는 네 종류의 디지털 그림 엽서를 만들어 주민들이 타주의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방문 초청이라든지 소식 전하는 매체로 사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래의 인터넷 주소를 방문하면 엽서를 사용할수 있다.
<http://www.itsatrip.org/vfr/> ■



지역사회소식

한인 군인가족으로 부터의
그림 엽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군인가족 박물관 (Museum of the American Military Family)은 군인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박물관이다. 미국 국방을 위해 근무하는 군인 못지 않게 그들의 가족도 근무 기간중 함께 겪어야 하는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군인가족들의 삶 속에서 체험된 소중한 애기와 역사적 자료등을 모아서 보관하고 소개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특수한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쉘스 우스너 (Circe Woessner) 여사는 광야의 소리 편집부에 요청해 오기를 한국인 군인가족에게서도 많은 자료를 얻게 되길 기대하며 지면을 통해 홍보해 줄것을 부탁해 왔다.

군인가족박물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한가지는 그림 엽서 수집, 즉 포스트카드 프로젝트이다. 그림엽서에 단편적으로나마 군인 가족으로서의 고통스러웠던 일이든 자랑스런 일이든 무엇이든지 9자에서 90자 이내로 써서 보내주면 이를 모아서 2014년 5월부터 샌디아 연구소 입구쪽에 있는 핵 과학 박물관 내에 군인가족 박물관의 전시장을 설치하고 여러가지 전시물과 함께 그림 엽서들을 함께 장기 전시할 계획이다. 글 머리에는 (1)이름(성은 밝히지 않아도 무방), (2)군인과의 가족관계, (3)군인생활 지역 지명, (4)기간 년도의 네가지를 명시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사장 직책을 맡은 우스너 박사는 특히 한국 군인 가족 중에서 많이 참여해주길 바라면서 한글로 쓰여진 엽서도 많이 보내 주길 원했다. 번역을 하는 봉사자들이 있어니 한글이든 영어든 모두 환영한다.

엽서를 보내주실 주소는 : MAMF, PO Box 5085,



군인가족박물관장 쉘스 여사

Albuquerque, NM87185 이며 상세한 점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알아 볼수도 있다. 주소는 : www.museumoftheamericanmilitaryfamily.org

내년3월까지 500장의 그림엽서를 모을 계획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약 50여개를 모은 상태라고 한다. 지금까지 들어온 엽서 중에서 세개의 예문을 참고로 보면 아래와 같다.

(1) 산디애고 도시의 그림 엽서

1.이름: Kim 2. 가족:해병의 처 3. 지명: 샌디애고 4. 년도: 1998-현재

글 내용 : 홀로....., 함께....., 홀로....., 함께.....
 해병과 함께 산다는것은 참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9페이지로 계속〉

Paseo del Norte/I-25 입체교차로 공사 시작

알버커키시는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한 Paseo Del Norte와 I-25 교차로 지점에 원활한 진출입을 할수 있도록 지금의 교차로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입체 교차로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설계와 공사를 맡을 업자 선정 작업을 추진해 왔었다. 리차드 베리 알버커키 시장은 앞으로 9천 3백만불의 총 공사비와 2 년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이 프로젝트를 맡게될 업자로 Kiewit New Mexico/Bohanna Huston Inc./Terracon 의 세 회사로 구성된 팀을 선정 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점은 출퇴근시의 교통정체도 문제였지만 매년 500 건 이상의 교통 사고도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해서 알버커키 시에서 제일 가는 교통 지옥으로 알려진 곳 이기도 하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 지점의 공기오염도 적어지고 Paseo Del Norte 동서 방향의 교통 체증도 해소해 줄것이며 매년 약 2백 5십만 달러 상당의 휘발유도 절약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I-25 서쪽, 교통체증이 심했던 Jefferson/Paseo del Norte 네거리의 입체화 공사도 포함 하고 있다. 9월중에 공사 시작은 되겠으나 본격적인 공사는 10월초의 Balloon Fiesta 가 끝난 후가 될것이고 입체교차로의 완공은 2년후인 2015년 가을경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자료출처:www.paseoi25.com 글:이옥주 권사)



I-25남쪽에서 본 입체교차로의 상상도. I-25의 북쪽으로 가는 차선에서 Paseo Del Norte 서쪽 방향으로의 진출과 Paseo Del Norte 서쪽에서 I-25 남쪽 방향으로의 진입은 신호등을 거치지않고 연결된다.



Jeffersen /Paseo del Norte 교차로의 상상도. Paseo del Norte 동서 방향의 차선은 고가도로가 되며 좌 우 회전은 현재와 같이 네거리에서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THE INGLES
Company
Realtors

부동산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6711 Academy Rd., NE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최귀분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사람 잡는 성경해석?

프락시스 성경연구의 네 단계는 말씀읽기, 말씀묵상, 말씀기도, 말씀관조이다. 이 가운데 말씀읽기와 말씀묵상은 성경에 기록된 본문을 가지고 깨달음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기록된 본문을 가지고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이 간단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깨달음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전문적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일반인 접근을 금지시킨다. 이유는 그 사건 현장을 잘 관찰하고 해석하면 범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관이 달려와서 현장에 있는 지문들을 채취하고 범인이 남긴 것 또는 떨어뜨린 것들을 찾으려고 구석구석을 뒤진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돋보기를 들여대고 찾아다닌다. 철저하게 사건 현장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찾아놓은 단서들, 즉 증거자료들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놓는다.

다음 단계는 찾은 자료들에 대한 해석이다. 발견된 모든 자료들을 일일이 해석해내야 한다. 누구의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왜 그것이 거기에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체계적인 방법으로 증거물들을 해석해나간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 하나가 발견되었으면 누구의 머리카락인지를 규명해낸다. 머리카락의 주인이 밝혀졌다고 덩석 범인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범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능한 수사관은 증거물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해석한 후에는 증거물들 간에 상호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물론 당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서 그 증거물들을 해석한다. 결국 수사관은 이런 해석을 통해서 범인을 유추하게 된다.

다음 과정은 평가하는 단계이다. 수사관은 처음에 유추해낸 사람을 범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는다. 유추하는 과정가운데 자신이 오해하거나 실수한 것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핀다.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 정황이나 증거들에 비추어 자신이 추정하고 있는 사람이 진범인지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 과정은 적용하는 단계이다.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범인을 확증하게 되면 수사관은 지목된 범인을

김기천 목사

Rev. Kee_Cheon Kim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잡아들인다. 즉 입증된 해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유능한 수사관이란 철저한 방법론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객관적인 관찰, 해석, 평가, 적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범인을 찾아낸다.

만일 위와 같은 객관적 방법론 없이 증거물들을 잘못 해석하면 그 수사관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 있다. 더욱이 이렇게 범인으로 지적된 사람이 처형당했다면 그 수사관은 “사람 잡는 수사관”인 셈이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수사관의 증거물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영혼이 미혹당하거나 타락하게 된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사람 잡는 선생”이 되는 것이다. 유능한 수사관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을 관찰, 해석, 평가, 적용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의 한 이단 교주의 성경해석을 보자.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 (사42:1)”란 말씀에서 “동방에서 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동방의 나라 한국에서 태어난 교주 자신이라고 해석한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사42:25)”란 말씀은 교주 자신의 고향이 이북이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월남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사 41:1)”는 섬나라 일본을 향해 조용하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해석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주에게 미혹되어 한국 기독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왔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한 이단

교주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런 교주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은 가족을 잃거나 재산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일들이 생겨났다. 문제의 근원은 물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교주에게 있지만 또한 이런 왜곡된 해석들을 바르게 분별할 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는 있지만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는 않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에 빠지거나 심각한 문제에 휩쓸린다. 그나마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쉽게 현혹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성경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서있지 않은 이런 기독교인들은 이단의 전도 대상들이 된다. 교회가 성경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제시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기독교 이단들은 자신의 교리가 진리라고 강조하며 더욱 활개를 치게 된다. 그 결과로 교회가 이단들에게 휘둘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인들은 이단들에게 미혹당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다. 지금쯤이면 누구나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주석 방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성경 원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적 비평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하다. 문제는 보통 일반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체계화된 대중적인 해석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평범한 책이다. 소수의 전문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다. 성경에 기록에 사용된 헬라어를 “코이네(Koine)”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란 뜻이 있다. 라틴어 성경 가운데 “벌게이트 (Vulgata)” 번역본이 있는데 이 말 역시 “평범한, 대중적인 (책)”이란 의미가 들어있다. 결국 성경은 전문가만 읽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소식

고 유재명 선생님 소천

지난 2013년 8월 21일 알버커키에서 39년간 살아 오셨던 유재명(James Jaemyung Yoo) 선생께서 86세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소천하셔서 8월 26일 프렌치모투리 웨스트(French Mortuary West)에서 장례식이 현용규 은퇴목사님의 집례로 있었다. 장례식에서는 김준호 장로의 기도와 이경화장로의 고인의 약력소개와 특송으로 크리스티나, 미란다의 플룻연주가 이유신 집사 반주로 있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한희열씨가있고장남 유인준(처:유성신), 장녀 유영주(사위:송진호), 차남 유경준(처:Burmardette)과 아홉명의 손자손녀와 한명의 증손자가 있다.



선생께서는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교직생활을 하였고 14후퇴때에 월남하셔서 반도호텔, 워커힐 호텔에 근무하시다가 일요신문, 현대 경제일보 전무로 근무하셨고 1973년 미국으로 이민오셨으며 알버커키에서 Stadium Liquors를 경영해 오셨다. 알버커키 한인사회를 위해서 후원을 늘 아끼지 않으셨던 선생의 뜻을 받들어 장례식에 모인 부조금은 전액 한인회 후원에 쓰이도록 전해졌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읽어야 한다.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프락시스 성경공부에서 처음 두 단계 “말씀읽기”는 읽기를 강조하고 “말씀묵상”은 이해를 강조한다. ■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8.95/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다섯가지 냉채 \$32.95/
간pong,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인생 최고의 시간, 바로 지금

앨버커키... 처음 들어본 곳인데 어떤 곳일까? 우리가 1년 동안 살기에 좋은 곳일까? 아이들은 잘 적응할까?... 막상 갈 수 있었던 오하이오나 캘리포니아 대신 이곳에 오고 싶다 남편에게 말해놓고 나는 많은 고민이 되었다. 정보는 단지 남편과 같은 연구실에 계신 분께 들은 몇 가지가 다였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이유는 단 한가지, 날씨가 좋다는 이유였다. 미지의 세계에 가는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웬지 이곳에 오고 싶단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의심치 않았기에 대부분의 안식년 교수님들이 선택한 잘 알려진 곳이 아닌 이곳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10년 전, 남편이 박사 후 과정을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했을 때, 서울과 별 다른 없는 대도시가 좀 답답했었던 느낌이 있었고, 한창 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과 늘 파랗고 맑은 하늘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곳으로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월 말, 15시간의 기나긴 비행 시간 후에 도착한 앨버커키는 온통 갈색으로, 어떤 고대도시에 온 것 같은 첫인상이었다. 정신 없이 집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이곳에 약간 실망감도 들었고, 전혀 지인도 없었던 터라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었다. 과연 나와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찾아 한 교회를 가보기로 했는데 막상 가려 하니 뉴욕에 있을 때 잘 모르고 한 이단교회에 얼마간 출석했던 기억이 떠올라 처음 교회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늘 고민 끝에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에게 당연히 제일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다. 어린 시절,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8살 때 이모가 이야기해 준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늘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자라나 많이 교만한 나에게 항상 주님은 연단으로 나를 성장 시켜주셨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 주님은 나에게 많은 시간 배우자 기도를 통해 내가 보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 주셨다.

물론 사단은 언제나 틈을 노리고 우리 가족을 쓰러지게 하려 했다.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박수경 집사

찬양팀 반주자
성가대원



부부는 대전에서 지내며 남편의 모 교회가 있는 수원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 2003년 겨울, 먼저 출발한 남편을 따라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성가 연습을 하러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던 나는 눈길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 큰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차는 거의 반파되었지만, 나와 아이는 무사할 수 있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아이는 약하게 태어났고 피아노를 치던 나는 왼쪽 눈의 일부분이 마비되어 예전처럼 피아노를 잘 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원망의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이러한 일들로 인해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곳에 온지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축복과 인도하심에 다만 놀라울 뿐이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교통 사고 후 예전만큼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자존심에 성가대도 피아노 반주도 그만두고 대형교회에서 그냥 주일예배만 드리며 지냈던 나에게 다시 피아노 반주를 하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노래를 만드는 도전도 주셨으며, 애들을 봐줄 곳이 없다는 핑계로 떠났던 성가대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아이들은 공해 없는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큰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나 또한 다시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언제 쓰여질 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대학에서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혹 한국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위 유명한, 흔히 알려진 곳으로 갔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따금 묻고는 한다. 아마도 우리 가족은 그냥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더 세상의 짧은 기쁨과 여유로움에 매달려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큰 한인교회에선 봉사의 필요도 없었겠고 다시 공부를 하려는 마음도 크지 않았을 것이며, 아마도 내게 새로운 도전과 비전은 없었을 것이다.

매일 학교에서 어린 대학생 친구들과 4시간씩

영어를 배우고 숙제하고 집안일 하고, 수요찬양단과 주일 성가대 등으로 너무나 바쁜 지금이지만,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이 있고, 아이들에겐 소중한 추억과 경험, 그리고 남편에겐 재충전의 기회가 있는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남은 이곳에서의 일들도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 하실지 너무나 두근두근 한 마음으로 기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특히 지금 앨버커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많은 성도님 들께 얼마나 많은 도움과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지 모른다. 지금의 우리가족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지만 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많은 사랑을 다시 사랑의 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리라 믿기에 지금 이 모든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앞으로의 매 순간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임을 알기에 늘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

군인가족 그림엽서 보내기 (4페이지에서 계속)

(2) 독일 그림 엽서에 써 보낸 글.

글 내용: 20 년 동안 독일, 푸르토리코와 한국등에서 근무하고 이제 처는 드디어 제대를 하게 되어 시카고 지역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3) 하와이 그림 엽서

글 내용: 하와이에 배치된 첫날, 난 생 처음으로 생선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근무생활도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군인이든 현역 군인 가족에 해당 된다면 그림엽서 보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엽서를 광야의 소리 편집부로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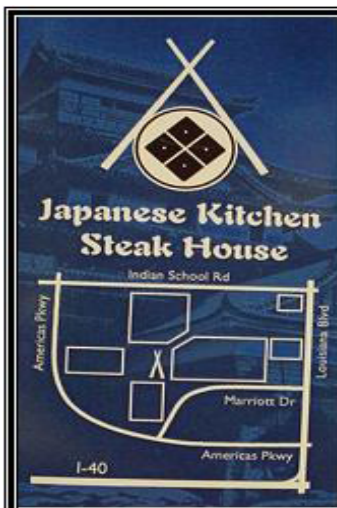
알버커키 공립학교 년중 계획표

2013-2014 APS School Calendar



Aug. 6	First day back for teachers, school staff
Aug. 13	First day of school
Sept. 2	Labor Day (schools and administrative offices closed)
Oct. 10-11	Fall break (schools closed)
Oct. 31-Nov. 1	Mid-School conferences
Nov. 11	Veterans Day (schools closed)
Nov. 25-26	Elementary School conferences
Nov. 27-29	Thanksgiving break (schools closed; administrative offices closed Nov. 28-29)
Dec. 23-Jan. 3	Winter break (schools closed; administrative offices closed Dec. 23-Jan. 1)
Jan. 6	First day of second semester
Jan. 20	Martin Luther King Jr. Day (schools closed)
Feb. 17	Presidents Day (schools and administrative offices closed)
Feb. 18	Teacher Training Day (no classes for students). Snow make-up day, if needed
Feb. 27-28	Mid-School conferences
March 6-7	Elementary School conferences
March 20-21	High School conferences
April 14-18	Spring break (schools closed; administrative offices closed April 18 for the Vernal Holiday)
May 22	Last day of school
May 23	Weather make-up day (if needed)
May 26	Memorial Day (schools and administrative offices closed)
May 27-30	Weather make-up days (if needed)

주셔도 좋다. 편집부에서는 엽서를 모아서 우스너 여사에게 전달해 드릴 계획이다. ■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Phone (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아픔과 상처의 결정체인 들보

성경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 성경구절은 흔히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교훈이 있는 구절이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눈에 자그만한 뭔가가 들어 있어도 우린 불편함을 호소한다. 하물며 눈속에 들보가 들어 있다 하면 그 만큼의 고통과 그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예뻐 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을 헐뜯고 입을 열때 마다 불평과 시기와 질투어린 말만을 떠든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들보가 너무나 앞을 가리고 아픈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험담을 일 삼고 늘 불평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뭔가 고치고 싶고 자신이 가진 것보단 못 가진것을 찾아낸다.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칭찬보단 흉을 보는 일로 그 마음을 달랠다. 한국 사람들은 입바른 말을 잘해서 때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입바른 말은 “거리낌없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똑바로 하는 말을 일컫는다”한다. 사실을 왜곡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위로와 격려되는 말 또한 아니다. 상대방에게 득이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의 책임으로 전가할수도 있는 말인것 같다.

박광종 박사

찬양팀, 성가대원
postdoctoral fellow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College of Education UNM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굳이 사실은 왜곡하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을 꼭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이, 꺼리낌없이 남의 험뜯고 모함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고 권면할 수 있는 이, 그것이 진정 입바른 소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기독교인으로써 우리를 욕하고 홍보는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에게겐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성경구절을 통해 자신의 눈속에 있는 들보때문에 고통과 슬픔으로 남에게 상처주는 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싶다. 그것이 정말로 어렵기에 우리자신의 기도도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가능케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미국인 5명 중 1명은 집에서 영어 안써...

미국 연방 인구 통계국이 발표한 ‘미국의 언어 사용 패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5세 이상 미국인은 600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세 이상 미국인 5명 중 1명(20.8%)에 해당된다. 영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3760만 명은 스페인어 사용자였다. 중국어

사용자가 288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필리핀인이 쓰는 타갈로그어 159만 명, 베트남어 142만 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어를 쓰는 미국 거주 한인인 114만 명이었다. 인구통계국은 “그러나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영어에 서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집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3760만 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56.3%는 영어에 능통했고 전혀 영어를 못하는 경우는 9%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요약기사 자료 출처: 조선일보) ■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여러분을 BSF로 초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6:6)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10}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 119:103)

남편의 유학 시절 아이 셋과 남편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을 때 친한 언니로부터 들었던 **BSF(Bible Study Fellowship)**! 일주일 한번 성경공부를 한다, 숙제도 해야 하지만 못해가도 듣기만 해도 좋다... 박사후 과정을 밟을 때 다시 한 집사님의 BSF 얘기에 '아~그때 그거?' ... 그리고 교회에 다닌지 7년 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와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간절한 그리고 갈급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전 교회에서 1년 가량 QT를 하며 조금씩 말씀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이후 알버커키로 이사를 왔다. 말씀을 더욱 알고싶고 나누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평소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교회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BSF 이야기를 들었다. '맞아, 이게 있었지!' 몇 번이나 들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나에겐 그저 스쳐가기만 했던 BSF...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한번 느끼며 그렇게 나의 BSF는 시작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성경공부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알아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이번엔 BS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분부터 예전에 다녔거나 들어봤거나 모르는 분까지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BSF는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본부(www.bsfindernational.org)를 두고 50년 넘게 38개국에서 1000여 개의 그룹공부를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고 이곳 알버커키에도 많은 성경공부 팀이 있습니다.

낮시간에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Hoffmantown Church(Wed.)와 Sagebrush Community Church(Thu.), 그리고 저녁시간엔 월요일 저녁(6:55) 1st Baptist Church에 남/여반이 있고, Sandia Baptist Church엔 남자반이 있습니다. University Church of Christ에선 화요일 저녁에 남/녀 수업이, 그리고 Hope Evangelical Free church에선 화요일 저녁 여자반 이렇게 모두 8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작예배를 모두 함께 드림으로 시작해 각자가 속한 방에 모여 리더를 따라 매 주 읽을 성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서로 답을 내고 자신의 삶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다시 모여 찬양과 그 날 공부했던 것을 보충하고 짚어주는 마무리 시간으로 2시간 남짓 진행됩니다. 떠나면서 다음 주 수업내용을 받아 복습하며 공부하고

다음 주 성경말씀을 읽고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해가면 됩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으나 내 삶에 적용시켜 생각해야 할 때 사실 많은 생각을 요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그 안에서 나를 들여다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흥분과 기쁨은 참으로 큼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성경공부를 돕는 2시간 분량의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어서 누구든 원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나누는 것이 훨씬 이해도 쉽고 잘 와닿고 표현도 쉬울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나눠준 자료를 읽고 공부하는 시간도 참으로 유익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참고로 스페니쉬 그룹이 운영되고 있어 많은 한국분들이 참여하면 한국어반 개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업 듣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탁아도 병행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 날 얼마나 아빠가 듣는 수업 내용 중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구절도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 온 가족이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구요!

보통 9월에 시작해 익년 5월이면 끝나는 이 성경공부의 내용은 구약에선 창세기, 모세의 삶, 이스라엘과 소년지자, 이사야를 신약에선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새로 나올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엔 창세기를 올한 마태복음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9월이 시작이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주변 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의 말씀에 함께 해 볼 만하겠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

〈추가 소식〉이번 주부터 한국어 그룹이 Hoffman Town Church에 개설 되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 없이 토의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예배와 마지막 강의는 함께 해야하니 이 시간만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

(글: 권현수 집사)

푸에블로 인디언은 누구인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푸에블로는 뉴멕시코 주와 애리조나 주, 텍사스 주에 부락을 이루어 사는 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 부족들을 말한다. 현재 21개의 푸에블로 부족이 있는데 19개의 푸에블로는 뉴멕시코 주에 있으며 대부분 리오그란데(Rio Grande) 강 가까운 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1600년경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점했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기를 부락을 이루고 사는이란 뜻에서 푸에블로 인디언(Pueblo Indian), 또는 푸에블로인(人)(Pueblo People)이라고 부른 것이 그들을 일컫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푸에블로(Pueblo)는 스페인어로써 부락(Village)이란 뜻이다.

(본문은 이경화 (khlnmusa) 장로가 위키백과에 기여한 글임)



아코마 푸에블로 인디언은 Sky City 로 불리우는 메사 언덕위에 거주해 왔다.

역사

푸에블로의 선조는 아래의 셋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 아나사지(Anasazi[anə 'sazi]): 뉴멕시코 서북부 차코 캐니언(Chaco Canyon)과 콜로라도 남서부 메사버드(Mesa Verde)에 살던 원주민
- 모거언(Mogollon[mooggə 'yoon]): 뉴멕시코 서남부 힐라 황무지(Gila Wilderness)와 애리조나 동남부 및 멕시코 북부지역에 살던 원주민
- 허호컴(Hohokam[hə 'houkəm]): 애리조나 카사 그란데(Casa Grande)를 중심으로 살던 원주민

1598년 스페인의 오냐테(Oñate)장군이 이끄는 뉴멕시코 원정팀이 올라와서 리오그란데 강 상류 지역에 스페인 이주민을 정착 시키면서 푸에블로는 스페인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선교하는 활동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를 거부하는 푸에블로의 세력도 컸다. 아코마(Acoma)푸에블로인들과의 갈등으로 10여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Acoma Pueblo (Oil on Canvas)
박영숙 화백의 유화에 비친 아코마 푸에블로 마을.

자 보복으로 아코마를 공격하여 600여명을 죽이고 항복을 받아낸 뒤에도 25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그들의 발목 하나를 잘라 버리는 잔인한 처벌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주해온 스페인 이주자도 그의 통치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스페인의 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 오냐테를 소환하고 페드로 데 페랄타(Pedro de Peralta)를 1609년 임명했다. 그 이듬해 페랄타는 산타페를 수도로 정하고 이 지방을 다스렸다. 스페인사람들은 푸에블로인에게 개발된 농기구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가져온 소, 말, 양을 기르게 했고 밀, 양파, 사과 등의 농업기술을 가르쳤다. 스페인 군인들은 이방인, 즉 나바호와 아파치인 인디언이 푸에블로 부락을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 줌으로써 상호 의존의 혜택을 주고 받아 평화를 유지해 나갔다. 1670년에 이르러 심한 가뭄으로 식량난을 겪은 데다 스페인 사람들과 접촉으로 인한 유럽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병이 푸에블로 인디언에게 퍼져서 면역성에 약했던 이유로 인해서 인디언의 사망률이 높아 인구의 급작스런 감소가 있었다. 1675년에



포페이(Pope)상.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내에 있는 국립조각상 홀에 전시되어 있다. 오른쪽 남자는 이 상을 조각한 헤이메즈 푸에블로 조각가 클립 프라과(Clip Fragua)이다.

와서는 고유의 종교의식에 박해를 가하는 일이 일어났다. 47명의 종교 지도자를 체포하고 4명에게 교수형 언도를 내렸다. 푸에블로 지도자 70명이 산타페를 쳐 들어가 협박하여 살아 있는 종교 지도자를 구출 해내긴 했으나 이로 인해 상호간의 갈등은 고조 되었다. 그때 석방된 자 중의 한사람인 포페이(Popé 혹은 Popay)란 산환(San Juan)푸에블로 인은 스페인 사람들의 통치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여러 부족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고 1680년 8월10일 일제히 봉기하여 성당을 불사르고 사제를 죽이는 푸에블로 반란(Pueblo Revolt)을 일으켰다. 11일 동안의 격전 끝에 산타페는 2,500명의 병사의 승리로 푸에블로의 손에 넘어갔다. 산타페에 있던 3,000명의 스페인 사람들은 뉴멕시코 남쪽 엘파소로 피난을 갔고 스페인의 통치는 막을 내렸다. 주권을 되찾은 푸에블로인 들은 새로운 어려움에 부딪혔다. 어느 부족이 산타페를 차지할 것인가란 질문에도 통일된 의견이 없었고 부족들 간의 거리가 너무나 원거리여서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고 8개의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부족 간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포페이는 그 후 스페인 군인들의 두 차례에 걸친 공격을 막아 내긴 했으나 부족을 연합 시키는 일에는 힘이 부족했다. 1692년 디에고 데 발가스(Diego de Vargas)는 스페인 군인150명과 우호적 관계를 가진 군인 다수를 거느리고 다시 산타페에 무혈로 입성하여 지도자들과 평화적인 협상을 맺고 푸에블로 인디언은 스페인의 통치를 받으며 평화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1821년 스페인의 통치는 끝나고 독립한 멕시코의 영토가 되었으나 1846년 멕시코-미국 전쟁이 일어났고 멕시코는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남서부의 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1천5백만 불을 지불하고 푸에블로는 미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산림을 국유림으로 관리하게 되자 푸에블로의 권익에 피해를 주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타오스 푸에블로에 흘러 들어오는 개울물의 근원지인 블루레이크(Blue Lake)가 국유림으로 들어가 그의 소유권을 놓고 60여 년간 법정투쟁을 벌인 결과 타오스 푸에블로가 1970년 승소한 것은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된다.



타오스 푸에블로(Taos Pueblo)는 UNESCO 세계 문화 유산 으로 지정된 푸에블로다.

오늘의 푸에블로

오늘 날에도 푸에블로들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각각의 푸에블로는 하나의 독립 국가와도 같이 그들의 정부가 있고 그들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 선거를 치르며 그들이 운영하는 법정이 있고 그들의 경찰이 있다. 푸에블로를 관리하는 부족의 정부는 부족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타아나 푸에블로에서는 주민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새로운 시설 작업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택지에 전화선의 연결이 안 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려고 한다. 푸에블로인 들 중에는 농업이나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로스앨러모스, 산타페, 알버커키 같은 도시로 나와서 미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들의 푸에블로에서 특별한 종교적인 또는 축제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푸에블로에 와서 함께 행사를 돕는다고 한다. 이제는 모두 영어를 사용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푸에블로의 고유 언어도 가르쳐서 전통을 이어받게 하려고 노력한다. 푸에블로 인들은 그들의 공예품을 만드는 일에 탁월한 예술적인 재주를 가졌다. 푸에블로마다 독특한 수법과 디자인으로 도기, 터키석의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푸에블로의 현대적 도자기

종교

푸에블로는 인간이 지하 세계에서 밖으로 나왔다고 믿는다. 인간의 의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땅을 보호하고 짐승들을 존중해야 하며 하늘과 땅에 늘 감사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년중 종교의식으로 춤을 추면서 비가 많이 내려서 옥수수의 경작이 잘 되길 기원하는 콘댄스(Corn Dance)의식이 있는데 모든 푸에블로의 공통되는 행사다. 콘 댄스 외에도 버팔로 댄스, 사슴댄스도 있는데 춤의 의식은 신에 감사의 표시며

또 소원을 기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연신과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카치나(Kachina)가 있다고 믿는다. 카치나는 인형처럼 만들어서 집에 성물로 두기도 한다. 카치나의 복장과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춤을 추면 카치나의 신이 춤추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믿는다. 푸에블로부락마다 둥근 원형으로 지은 키바(Kiva)라고 부르는 종교 의식을 위한 건물이 있다. 반 지하실에 가깝게 땅 밑에 짓고 지붕은 평평하게 아도베 건축 형식으로 짓고 중앙에 통로를 두고 사다리로 출입을 한다. 키바 안 바닥에는 지하 세계로 연결됨을 상징하는 구멍을 만들어 둔다. 키바는 신성한 곳 이어서 어린이나 여성들은 출입을 못하게 한다.



카치나(Kachina) 인형들

푸에블로 리스트(List)

푸에블로를 방문 할 때에는 그곳의 규정을 잘 따라야 된다.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이 대부분의 푸에블로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된다. 푸에블로마다 여행객이 방문할 수 있는 고유의 축제가 매년 정해진 날에 열린다. 아래의 리스트에 이를 표시하였다.

뉴멕시코

아코마 푸에블로(Acoma Pueblo) 120m 높이의 메사(Mesa) 절벽 위에 자리 잡은 푸에블로여서 하늘의 도시(Sky City)란 별명이 붙어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단체로 입장하는 관광 서비스가 있다.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나 사진은 \$10의 요금이 사진기 당 부과된다. 교회와 묘지는 촬영이 금지 되어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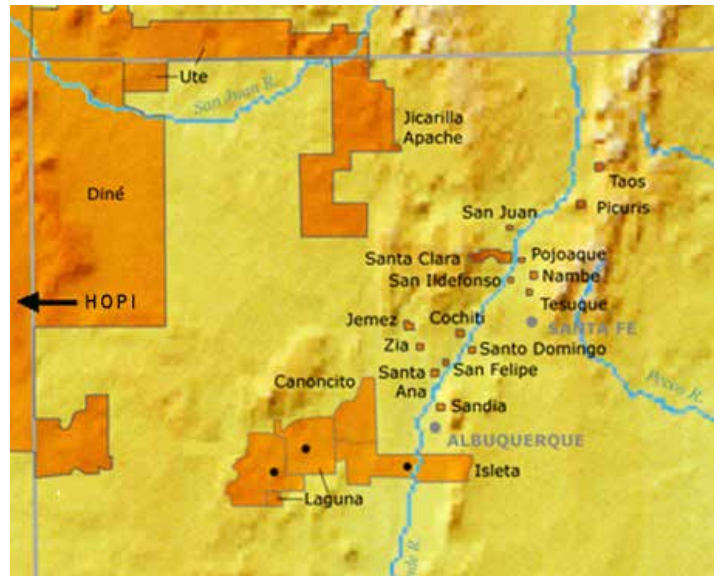
코치티 푸에블로(Cochiti Pueblo) 축제일(Feast Day)은 7월14일

이즈레타 푸에블로(Isleta Pueblo)

헤이메즈 푸에블로(Jemez Pueblo)축제일(Feast Day)은 8월2일

라구나 푸에블로(Laguna Pueblo) 축제일(Feast Day)은 9월19일. 사진은 금지.

남베 푸에블로(Nambe Pueblo) 성 프란시스 축제일



뉴멕시코주의 푸에블로의 분포

(Feast Day)은 10월4일

오케오윙에 푸에블로(Ohkay Owingeh Pueblo) 축제일(Feast Day)은 6월24일 2005년까지는 산환(San Juan)푸에블로라고 불렀다.

픽카리스 푸에블로(Picuris Pueblo)축제일(Feast Day)은 8월10일

포워키 푸에블로(Pojoaque Pueblo)축제일(Feast Day)은 12월12일, 1월6일

샌디아 푸에블로(Sandia Pueblo)축제일(Feast Day)은 6월13일

산 페리페 푸에블로(San Felipe Pueblo)축제일(Feast Day)은 5월1일

산 일데폰소 푸에블로(San Ildefonso Pueblo)축제일(Feast Day)은 1월23일 사진촬영 가능 (\$10)

산타 아나 푸에블로(Santa Ana Pueblo)축제일(Feast Day)은 7월26일

산타 클라라 푸에블로(Santa Clara Pueblo)축제일(Feast Day)은 8월12일

타오스 푸에블로(Taos Pueblo)UNESCO 세계 문화 유산 으로 지정된 푸에블로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관광객도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다. 축제일(Feast Day)은 9월30일 사진촬영 가능 (\$6) [3]

테수키 푸에블로(Tesuque Pueblo)

지아 푸에블로(Zia Pueblo)축제일(Feast Day)은 8월 15일

주니 푸에블로(Zuni Pueblo)

애리조나

호피 푸에블로(Hopi Pueblo)

텍사스

이즈레타 푸에블로(Ysleta del Sur Pueblo)축제일(Feast Day)은 6월13일

피루 푸에블로(Piru Pueblo) ■



지난 달 국내외 주요 사건



2013년 7월 주요사건

- 7월 6일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사망자 3명을 포함한 18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다.
- 7월 18일 디트로이트가 200억 달러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국 역사상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을 신청하다.
- 7월 22일 엘리자베스 2세의 손자며느리인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손비가 아들을 출산하다.

2013년 8월 주요사건

- 8월 5일 제프 베저스 아마존닷컴 CEO가 《워싱턴 포스트》 지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다.
- 8월 14일 한국과 북한이 7차례에 걸친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다.
- 8월 22일 한국의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개발한 다목적실용 인공위성 아리랑 5호(KOMPSAT V)가 러시아 야스니 발사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 시간: 오후 12:00 pm
§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505) 238-3551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주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87106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이준우 목사(505-269-0691)
주일예배 § 시간: 10:30 am
§ 주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8801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505)412-5420
hanaro21@hotmail.com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ean.org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 11:00 am (Sunday)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 5:30 am (Tue-Fri) § 6:00 am (Sat.)
§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 5:45 am (Tue-Fri)
수요 예배 § 매주 수요일 7:00 pm
§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월~토)
성경공부 §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453-5461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주택용자 Loan Officer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fice 505-206-9963)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 9021)	건축/페인트 Painting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 tors (505-249-8686)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치과 Dental Clinic
Asia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503-7685)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셋방 ROOM RENT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태권도 TaeKwonDo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리커스토어 Liquo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종교 Church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한의원 Acupuncture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부동산 Realtors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Dr. Chang: (장상순) 301 San Pedro Suit# B, SE, ABQ (505-710-7504)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NM (505-999- 8222)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Dr.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화랑 Gallery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부동산 Realtors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회원/원예 Nursery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부동산 Realtors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부동산 Realtors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p>	<p>카페/ 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 527-0098)</p>	<p>화밍톤 Farmington</p> <p>종교 Church</p> <p>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p>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p>종교 Church</p> <p>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p>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 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p>	<p>가게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 ington, 87402 (505-327- 7167)</p>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p>산타페 Santa Fe</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p>Sonoma Dental Implants Cosmetics 575-589-1599, 575-932- 8217 1074 country club rd, #3A Santa Teresa, NM 88008</p>		
<p>리오란초 Rio Rancho</p>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p>Osaka (Traditional Japa- 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p>치 과 Dentist</p> <p>소노마 치아이식 및 치아성형 원장 : 정명희,DDS 1074 Country club rd. #A3 Santa Teresa, NM 88008 (575-932-8217) (575-589-1599)</p>	<p>종 교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525 N. Madrid Suite #2,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p>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p>	<p>종교 Church</p> <p>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p>	<p>라스쿠르시스 한인교회 1132 Solano, Las Cruces, NM 88001 (575-644-6545)</p>		
<p>클로비스 Clovis</p>	<p>라스베가스 Las Vegas</p>	<p>치 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p>종교 Church</p> <p>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p>	<p>라스크루세스 Las Cruces</p>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 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p>			<p>광야의 소리 2013년 9/10월호 발행: 2013.9.22.</p> <p>발행인 : 김기천 (Kee-Cheon Kim) 편집인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p> <p>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voiceofnm@gmail.com (505)341-0205</p>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 -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www.abqsushiandsake.com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Mon-Sat
10:00-6:00
Sunday
close

Korean United Method Church In Albuquerque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www.kumcabq.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